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6년 12월 11일(주일) 제1127호



지난해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서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돌이키면 살아나리라”

내일(12일)부터 1월 21일까지 각 캠퍼스 본당  
오전 5시 20분 시작, CGNTV 예배실황 생중계

내일(12일)부터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돌이키면 살아나리라’가 시작된다. 2017년 1월 21일까지 40일 동안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에서 새벽 5시 20분에 시작된다.

해외비전교회와 전 세계 선교지에서도 CGNTV를 통해 새벽기도회에 동참한다. CGNTV는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실황을 전 세계로 생중계한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서는 이재훈 담임목사가 친구약에 기록된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개혁의 메시지를 선포한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세레 요한(마태복음), 아모스, 오바다, 요나, 스가랴, 선지자의 이야기를 다룰 예정이다. 이영표 선수, 이주연 목사, 김하중 장로, 이기복 목사, 바사르 선교사, 김성묵 장로, 유해근 목사, 이한영 교수도 강단에 오른다. 12월 24일에는 서서평 선교사의 일대기를 다룬 다큐영

화가 상영된다.

특순도 풍성하다. 주찬양, 주사랑, 주향한, 주의빛, 주경배, 주기쁨 찬양 사역팀, 권사성가대, 포에버성가대, 온누리장로합창단, 대청연합, 뮤지컬찬양팀, 일본어예배성가대, 온사랑합창단, 교역자합창단 등이 특순을 할 예정이다.

40일 동안 주제별로 중보기도도 한다. 월요일 나라와 민족, 화요일 차세대와 대학청년부, 수요일 선교, 목요일 교회, 금요일 가정, 토요일

통일을 위해 뜨겁게 부르짖는다. 이른 새벽에 교회에 오는 만큼 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공동체별로 카풀을 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는 송구영신 40일 새벽기도회의 새로운 이름이다. 지난해부터 사용했다. 작은예수로 변화되는 40일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

〈관련기사 4-5면〉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 다큐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상영

12월 24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

서서평 선교사 일대기를 다룬 다큐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를 12월 24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상영한다. 오전 5시 20분, 10시, 오후 2시, 5시에 상영된다. 10시부터는 공동체별로 영화를 시청한다(아래 표 참고).

서서평 선교사 일대기를 다룬 이 영화는 CGNTV가 제작한 80분짜리 다큐영화다. 크리스천이라면 꼭 봐야 할 영화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공개되는 영화다. 영화배우 하정우가 내레이션을 했다.

CGNTV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조선 선교에 헌신했던 선교

사의 삶을 재조명하기 위해 이번 영화를 제작했다. 올해 초부터 제작에 헌신의 힘을 쏟아부었다.

서서평 선교사는 독일 출신의 선교사다. 조선의 고아와 과부, 나병환자 등을 먹이고 교육하는데 한평생을 바쳤다. 아픈 가족사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그 생생한 장면을 담아냈다. ‘작은 예수’라고 불렸던 선교사 서서평의 일생을 통해 진정한 섬김과 헌신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 CGNTV 다큐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상영 시간

|        |                                                                                                         |
|--------|---------------------------------------------------------------------------------------------------------|
| 오전 10시 | 서빙고, 이수, 동작, 한강, 신용산, 관악금천, 서대문, 마포, 이촌, 성동광진, 양천, 양재, 강남A, 강남B, 강남C, 서초B, 서초C                          |
| 오후 2시  | 강서, 중종로, 일산, 김포, 고양은평, 영등포구로, 성북, OCC, 광명, 동대문중앙, 노원, 강남D, 서초A, 서초D, 송파, 푸른누리                           |
| 오후 5시  | S브릿지, 중국어 예배, 가정사역, 복누리, 찬양, 일본어 예배, 강촌, 여의도, 용산, 분당A, 분당B, 과천의왕, 인양평촌, 신본안산, 브릿지13+, 특별한초대, Point5, 요셉 |

## 김영진 목사 ‘새노래교회’ 개척

서대문구 수색로 40 우창빌딩 5층

김영진 목사가 서울시 서대문구 수색로 40 우창빌딩 5층에 ‘새노래교회’를 개척했다. 김 목사는 온누리교회에서 11년 동안 사역했다. 성인공동체와 예배본부 등을 섬겼다.

특히 예배본부장으로 섬기면서 예배자를 세우는 일에 헌신했다. 다수의 찬양을 작곡하고 앨범을 발매하기도 했다.

김 목사가 개척한 새노래교회는 지난달 27일 입당예배를 드렸다. 매주 주일 오후 2시 주일예배, 금요일 밤 8시 30분 금요성령집회, 평일 오전 6시 20분 아침말씀기도회가 진행되고 있다.

김영진 목사는 성도들에게 “큰 사

람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다”면서 “잊지 말고 새노래교회를 위해 중보기도 해 달라”고 부탁했다.

〈관련기사 7면〉

/ 김현준 기자

### 제직회

일시: 12월 18일 2부 예배 후  
장소: 서빙고 본당  
대상: 18세 이상 세례교인

### 공동의회

일시: 12월 18일 3부 예배 후  
장소: 서빙고 본당  
대상: 18세 이상 세례교인

기획\_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를 준비하는 사람들 4-5면 사역\_ CGNTV 대표 이용경 장로와 함께 6면 대학청년부\_사랑앓니눔 현장을 가다 9면

## 목상하는 목수를 찾아서 9

## 목상하는 마리아 임봉자 권사

“비결이요?  
예수님이요!”

목상하는 목수를 만났다. 일터에서 성공적으로 일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진짜 목상하는 목수 말이다. 그들이 일터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고,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있는지 궁금했다. 이번에는 목상하는 마리아다. 한 평생 미용으로 복음 전하고, 미용사역자를 훈련시키고 있는 임봉자 권사(강남B공동체)가 그 주인공이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여름 아웃리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역이 있다. 미용사역이다. 그만큼 주민들에게 인기가 좋고 결실도 풍성하다. 임봉자 권사는 바로 그 미용사역에 앞장서고 있다. 자신의 달란트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쓰는 목상하는 마리아가 틀림없다.

임 권사는 강남구 개포동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다. 첫 인상부터 얼마나 포근하던지 달려가 안기고 싶을 정도다. 환한 미소는 또 얼마나 예뻐던지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졌다. 환한 미소가 임 권사의 트레이드마크임이 분명했다. 누구든지 임 권사의 미소를 보면 덩달아 웃음이 나고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이웃상가와 그녀가 사는 아파트 주민들 대다수가 그녀의 팬이다.

“원장님의 밝은 미소의 비결이 뭐예요?”

“예수님이요!”

이것이 임 권사의 전도비결이다. 예수님이 너무 좋고, 예수님 전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웃음이 나와서 웃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전도 도구로 활용된다니 이 무슨 호사냐며 겸손하기까지 한다. 미소와 더불어 장착된 또 하나의 전도 도구가 있다. 바로 미용기술이다. 임 권사는 미용사역팀과 함께 전국팔도를 누비면서 복음을 전하고, 미용사역자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 돈도 벌고, 하나님의 사랑도 전하고

임 권사는 미용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미용이 곧 그녀의 삶이자 인생이라고 했다.

“스물두 살 때였어요. 처음 미용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요. 고아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을지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미용을 배우면 봉사하기가 좋다고 권해주셨어요.”

임 권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미용을 선택했다. 매월 고아원을 찾아가 아이들의 머리카락을 잘라주면서 큰 보람을 느꼈다. 아이들과 금세 친해졌고, 친해진 만큼 복음을 전하기도 수월했다. 봉사하기 위해 시작

한 미용이 임 권사의 삶이 되기 시작했다.

“결혼해서도 누군가에게 꼭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저에게는 미용이 남을 도울 수 있는 도구였기 때문에 계속 실력을 키웠어요.”

서른 살 무렵 반포동에 미용실을 차렸다. 아름다운 미소에 탁월한 미용 실력까지 겸비한 그녀의 미용실은 인기가 좋았다. 봉사하려고 시작한 미용이 가정경제에도 큰 도움이 됐다.

“양가에서 도움을 받지 않고 결혼을 했어요. 신훈 초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웠지요. 남편은 직장에 다니고 저는 미용실을 운영했는데 집안 경제에도 큰 보탬이 되었어요.”

봉사를 한 순간도 멈추지 않았다. 이풍우 집사(남편)는 고아원 아이들과 축구를 하고, 임 권사는 미용봉사를 했다. 미용으로 돈도 벌고, 하나님 사랑도 전하며 살았다. 온누리교회에 출석하면서부터 미용봉사의 지경이 넓어지기 시작했다.

## 미용을 가르치고, 미용으로 전도하고

“교회에서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에 미용을 가르쳐줄 수 있다고 써서 냈어요. 그런데 진짜 미용을 가르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임 권사의 또 하나의 봉사가 시작됐다. 여름 아웃리치에서 미용을 가르치고, 미용으로 전도하는 역할이 주어졌다.

“아웃리치가 정말 다양하고 규모가 어찌나 크던지 깜짝 놀랐어요. 미용사역이 있어서 저도 동참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와서 봉사자 한두 명으로는 어렵도 없더라고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미용사역팀을 꾸리기 시작했어요.”

미용실 단골손님부터 교회에서 오고가다 만난 성도들을 모아 미용사역팀을 만들기 시작했다. 팀원들에게 커트, 염색, 파마, 샴푸까지 미용기술을 정성스럽게 가르쳤다. 지난 17년 동안 바로 그 미용사역팀과 함께 전국 팔도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무더운 여름이면 목에 두른 수건이 땀에 흠뻑 젖을 정도로 힘들었지

만 사역할 때만큼은 천국을 맛보는 것 같았다. 아웃리치에서 미용사역팀은 어디가나 감초 역할을 했다.

농어촌사역팀과 함께하기도 하고, 대학청년공동체와 함께 가기도 한다. 5년 전부터는 양재 JDS 수료자들이 아웃리치를 가기 전에 꼭 임 권사에게 미용사역을 배우고 아웃리치를 떠나고 있다. 임 권사의 미용 실력이 탁월해서 배우러 오는 것만은 아니다. 임 권사의 미용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듬뿍 담겨있기 때문에 온다.

“올해는 강남B공동체 스리랑카 아웃리치팀에서 미용을 배우러 왔더라고요. 11주 정도 열심히 가르쳐 드렸는데 사역의 열매가 풍성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보람 있었는지 몰라요. 저에게 미용기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보내는 선교사가 된 기분이 들거든요.”

## 변하지 않는 포부와 비전

주중에는 미용실을 운영하느라 바쁠 텐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한동안은 시간을 내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생각이 달라졌어요. 일도 예배의 연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제 신앙을 유지할 수 있고, 일 하면서 손님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더라고요. QT, 새벽기도, 일대일 제자 양육은 절대 빼놓지 않아요.”

임 권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손님들에게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녀가 손님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아요. 요즘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일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손님들이 먼저 ‘원장님 그렇게 밝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뭐예요?’ 라고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의 사랑은 끝이 없기 때문이에요’ 라고 대

답하는 것이 제가 하는 전도예요.”

주말에 미용실 일을 도와주고 있는 조성임 성도도 임봉자 권사 덕분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다.

“손님으로 왔다가 친구가 됐어요. 사람이 좋아서 친해졌는데 알 수 없는 힘을 느꼈어요. 저는 세상에 지치고 쓰러져 가는데 임 권사는 늘 변함이 없더라고요. 늘 미소로 저를 반겨줬어요. 그 힘이 예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알고 저도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임 권사에게 미용을 배워서 미용사역팀에서 사역도 하고 있고요.”

임 권사는 오늘도 청춘이다. 전도 열정이 하나도 식지 않았다. 변하지 않는 포부와 비전이 있기 때문이다. 더 열심히 전도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최근에 책을 읽다가 QT를 나누는 것이 가장 높은 수준의 대화라는 내용을 보고 도전을 받았습니. 손님들과 대화하다보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오더라고요. 기회가 올 때마다 손님들에게 QT한 내용을 나누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또 하나의 비전을 꿈꾸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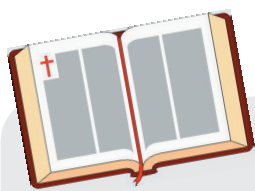
“작년여름 캄보디아 아웃리치에서 미용사역을 하면서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미용을 가르칠 수 있는 직업학교를 세우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몇 개월이라도 살면서 현지인들에게 미용을 가르치고, 삶을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미용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긴 성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배워서 남편과 아이들의 머리카락을 잘라 주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생활미용을 배우세요. 미용사역은 훈련된 삶이 필수입니다. 복음으로 훈련된 삶을 미용을 통해 전하는 것이 미용사역입니다. 미용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저를 찾아주세요. 기쁜 마음으로 훈련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시대 요셉을 추천 받습니다

문의: khj@onnuri.org



##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성탄을 맞이하는 달입니다. 교회력으로는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며 맞이하는 기간입니다. 예수님 오심을 맞이하고 기다리는 주간에 되도록 3주 동안 이사에 나타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베들레헴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신 이후에 훌륭한 삶을 사셔서 메시아로 인정 받은 것도 아닙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기 이전부터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출생이 예언되었고, 그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위인이나 종교지도자가 예언을 따라 세상에 왔습니까. 세상에 태어난 이후 훌륭한 삶을 살거나 다른 사람이 살지 못한 삶과 언행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언을 따라 세상에 오셨습니다. 구약에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200여 개가 넘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한 시대의 역사적 상황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가장 절망적인 역사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메시아 오심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절망적인 순간은 인간이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구원이 필요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절망적일 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집중되어 있는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 실상은 영적인 위기, 믿음의 위기

이사야 선지자는 8세기 다윗 왕실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7장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왕 아하스 왕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 중에 그 유명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사 7:14)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 20세 때 왕이 되어서 16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행하지 못하게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증오하시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과 유다 왕국을 징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주변 국가를 통해서 그 땅을 징벌하십니다. 그들과 대치하고 있는 주변 국가들을 통해서 남왕국 유다를 징벌하셨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군사 12만 명이 한꺼번에 몰살당하는 패배를 겪기도 했습니다. 당

시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 왕국이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던 앗시리아 제국에 대항하려고 동맹을 맺었습니다. 남왕국 유다에게도 합류해서 앗시리아에게 대항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남왕국 아하스 왕이 그 제안을 거절하고 더 힘이 센 앗시리아에게 붙었습니다. 그들과 동맹하지 않고 앗시리아에게 잘 보여서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 왕국이 좋게 볼 리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 사건이 이사야 7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 왕국이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왔는데 예루살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힘이 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선조 다윗 왕과 하나님이 “네 은총을 네게서 빼앗지 아니하니라”는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과 하신 언약을 지켜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아하스 왕에게 여러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9절까지가 그 말씀입니다.

“두 왕국이 동맹해서 너희를 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힘이 가장 센 앗시리아에게 의지해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치 외교적으로는 훌륭한 생각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예로보암 왕 이후부터 모두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악한 왕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을 때는 남왕국 유다도 부패했습니다. 관계가 좋았을 때는 둘 다 부패했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긴장이 있어도 거룩함을 유지하기 시작했을 때는 하나님이 보호해주셨습니다. 참 신비로운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강대국의 눈치를 보고 의지하려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하스 왕이 앗시리아 제국을 의지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을 때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모든 위기는 정치적, 군사적 위기인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영적인 위기고, 믿음의 위기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경제 위기고, 외교의 위기고, 정치의 위기인 것 같지만 실상은 불신앙의 위기고, 믿음의 위기고, 영적인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차원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으로 후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그들이 돌이키면 살아나는 기회를 주셨지만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

#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10~15

“환영하지 않고, 바라지 않고, 구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아도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사건이 크리스마스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히’

“여호와께서 다시 아하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께 표적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여라. 저 깊은 무덤에서 오는 것이든, 저 높은 위에서 오는 것이든 표적을 구해보아라”(10~11절).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워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아하스 왕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러나 아하스가 말했다. ‘저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12절).

이 구절만 보면 얼마나 멋진 사람으로 보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인간이 시험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하스 왕은 겉으로는 신앙적으로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불신앙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표적을 구하라고 하셨는데도 아하스 왕은 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도 없고, 표적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이사야는 아하스 왕의 불신앙을 꾸짖는 역할로 나옵니다. 아하스 왕의 태도는 이스라엘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어렵게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어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아하스 왕의 잘못된 믿음 때문에 백성 전체가 어려워지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표적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고 그를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14절).

주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표적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친히’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들이 불신앙으로 거절할지라도 친히 표적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아하스 왕의 불신앙은 오늘 이 시대의 불신앙을 상징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주시려고 표적을 구해보라고 해도 구할 마음이 없고, 기대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하나님께로 오는 구원을 원하지도 않고, 자신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조차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친히 표적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동의를 없어도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인간에게 동의를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동의가 없어도 역사하십니다. 심지어는 인간이 반역과 불순종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역사에 그렇게 순순히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구원의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배역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악함과 불순종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 1만조분의 1 확률

하나님은 아하스 왕의 완악한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에 뚫고 들어가셔서 친히 역사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환영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거역하고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백성들과 함께하십니다. 예수님이 예언대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정녀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는 주된 원인이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과학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만물이 움직여지는 모든 상황의 지극히 일부만 과학이 발견했을 뿐입니다. 그래도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 과학은 ‘어떻게?’라는 질문을 던지지만 신앙은 ‘왜?’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왜라는 질문을 던지다보면 어떻게가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라는 질문만 던지다 보면 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수학자 피터 스토너는 8개의 예수님의 메시아 예언을 확률로 만들어보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에 관한 예언은 200개가 넘습니다. 단지 8개의 예언이 수백 년 전에 주어졌는데 그것이 한 사람에게서 이루어질 확률은 1만조분의 1입니다. 1만조를 동전으로 바꾸면 미국의 텍사스 주 전체를 60cm 높이로 쌓을 수 있다고 합니다. 텍사스 주는 우리나라의 3배만합니다. 그중에 동전 하나가 1만조분의 1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 48개와 200개의 확률도 계산하려고 했는데 인간의 능력으로는 측정하기가 불가능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 동정녀 탄생의 이유

동정녀 탄생은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려는 표적입니까. 첫째, 동정녀 탄생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13면에 계속)

# 그들을 ‘하나님의 용사’ 라고 부르는 정말 특별한 이유

## 주차봉사팀, 예배 안내위원들의 보이지 않는 헌신과 수고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를 준비하는 사람들

01

주차팀, 예배 안내위원

내일부터 시작되는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 성도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고, 따뜻하게 새벽기도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다. 주차봉사, 예배 안내위원, 러빙핸즈 봉사자들, 교회 식당과 기관실 직원들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다. 그들은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 오는 성도들을 맞이할 생각에 벌써부터 흥분된다고 했다. 연거푸 “어서 오세요”라고 말하는 그들의 입술과 표정에 사모함이 진하게 묻어 있었다. 사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를 준비하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의 노고를 말로 다하기 어렵다. 적게는 한 시간, 많게는 세 시간 전부터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만난 보이지 않는 돕는 손길들은 주차봉사팀과 예배 안내위원들이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초소 앞에서 서빙고 주차팀원들.



서빙고 예배 안내위원들.

2010년 온누리교회에 처음 온 정인채 성도는 40일 특별새벽기도회(당시 이름)에 왔다가 깜짝 놀랐다. 새벽기도가 뭔지도 잘 모르는 초신자였던 그에게 그 많은 사람들이 새벽기도를 하러 교회에 온다는 것 자체가 신선한 충격이었다. 수많은 인파보다 그를 더 놀라게 한 사람들이 있다. 주차사역팀과 예배 안내위원들이 있다.

“새벽부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교회에 오는 것도 놀랐지만 성도들보다 먼저 교회에 나와서 주차안내를 하고, 예배당에서 자리를 안내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새벽에, 그 추운 날 그렇게 헌신적으로 섬기는 성도들을 보고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칼바람에 얼굴, 손, 입술이 부르터도 하나님 사모하는 성도들과 마주하는 기쁨**

정인채 성도가 말하는 것처럼 주차사역팀과 예배 안내위원들은 성도들이다. 직원들이 아니다. 자발적으로 섬김의 자리에 나온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이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 오면 주차사역팀이 가장 먼저 맞이해 준다. 주차봉사팀원들은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섬김을 가장 중요한 일정으로 여기고 모든 동력을 집중한다. 크리스마스, 연말연시에 개인 일정을 잡지 않을 정도로 헌신하고 있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가 시작되는 12월이 되면 모든 주차봉사팀원들이 스케줄을 비웁니다. 아침 미팅이나 거래처 약속, 회의 등을

오후로 미루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저녁약속은 일절 잡지 않고요. 철저하게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를 섬기기 위한 주차봉사팀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들에게 40일 동안 개인 스케줄이 없다. 그야말로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를 위한,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 의한 헌신이다.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로 이어지는 시즌을 온전히 성도들을 위해 헌신하는 그들의 신앙이 보석보다 반짝인다.

주차봉사팀은 누구보다 이른 시간에 봉사를 시작한다. 오전 5시 20분에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가 시작되는데 주차봉사팀은 두 시간 전부터 교회에 온다. 오전 3시 30분부터 봉사를 시작한다. 일찍 교회에 오는 성도들을 안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이른 새벽에 칼바람을 맞아가며 두 시간 넘게 입차(入車) 안내를 한다. 늦게 도착하는 성도들까지 안전하게 안내하기 위해서 새벽기도회가 시작돼도 자리를 떠나지 못한다. 예배당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초소에서 CGNTV를 시청하면서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 동참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새벽기도회가 끝나기도 전에 다시 봉사 위치로 돌아가야 한다. 서둘러 출차(出車)하는 성도들을 안내하기 위해서다.

주차봉사팀은 40일 동안 매일 새벽 4~5시간 정도 봉사를 한다. “견뎌내야 한다”고 표현할 정도로 고된 봉사다. 그들이 아침 약속도, 저녁 모임도 만들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헌신하는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용사다. 한겨울 뼈가 시릴 정도로 찬 칼바람을 맞으면서 얼굴, 손, 입술이 부르

트고, 발이 쪼그 열 정도로 괴로울 때도 있지만 그들이 힘내서 봉사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다. 성도님들을 맞이하는 설렘 때문이다.

“그 어느 때보다 주차봉사가 힘들고, 부담도 되지만 성도들의 반가운 얼굴과 환한 미소를 볼 수 있다는 설렘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성도님들과 마주하는 기쁨은 경험해보지 않고는 모를 것입니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 오는 성도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고 했다.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불법주차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오시면 교회주차장을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이나 카풀을 이용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환한 미소로 빈자리 찾아주는 예배 안내위원 더 섬기지 못해 미안하다는 비단 같은 사람들**

주차봉사팀이 교회 밖에서 수고하는 숨은 일꾼이라면 예배당 안에서 성도들을 위해 수고하는 또 다른 숨은 일꾼들이 있다. 바로 예배 안내위원들이다. 그들은 녹색 배지를 달고 성도들에게 빈자리를 찾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들도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기간 내내 다른 성도들보다 교회에 일찍 나와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봉사자들이다.

예배 안내위원들도 주차봉사팀과 마찬가지로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를 중심으로 연말연시 일정이 정해진다.

예배 안내위원들은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가 시작되기 한 시간 전부터 봉사를 시작

한다. 그들이 서둘러 봉사를 하는 이유는 그들보다 먼저 교회에 나와 부르짖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이다.

“예배 안내위원들보다 먼저 교회에 오시는 성도들이 항상 계십니다. 불도 켜지지 않은 예배당에서 기도하면서 새벽기도회가 시작되기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꽤 있습니다. 그분들을 볼 때마다 더 성실하게, 더 열심히 봉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배 안내위원들은 ‘친절하게, 더 좋은 자리로’를 가슴에 새기고 봉사에 임한다. 빈자리가 있는지 수시로 체크하고, 늦게 도착한 성도들이 당황하지 않고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가끔 미안한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온 가족이 함께 왔는데 따로 앉아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가 가장 미안합니다. 자리가 없어서 보조의자를 놔드릴 때도 미안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서도 더 섬기지 못해서 미안해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들의 마음이 비단보다 곱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용사라고 불리도 부족함이 전혀 없다.

예배 안내위원들은 성도들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다.

예배 안내위원들이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 오는 성도들께 부탁이 있다고 했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섬김의뜻 섬기겠습니다. 조금 늦게 도착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안쪽 자리부터 앉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믿음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 잠들어 있는 성도, 새벽에 불꺼진 교회 깨어나라! 새벽에 기도의 제단 쌓는 기도의 용사로 거듭나야

성경 속 위대한 인물들은 대부분 새벽기도로 하루를 시작했다. 새벽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능력을 받고, 삶이 변화됐다. 기적도 경험했다. 새벽기도가 가지고 있는 힘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처럼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새벽을 깨운 믿음의 조상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자.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대부분 새벽기도를 했다. 새벽에 기도의 제단을 쌓음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고, 기도를 받을 받았다. 그들은 결코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은 기도의 사람들이었다.



홍해를 가른 모세의 기적.

### 새벽기도로 승리하고,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 한나, 베드로, 예수님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도 아침 일찍 기도했다.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자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하고 모리아산으로 출발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창 22:3).

이삭의 둘째 아들인 야곱은 낚이 밝기 전 천사와 씨름하며 간구함으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았다(창 32:24-31). 20년 동안 야곱을 괴롭혔던 에서와의 문제도 해결됐고,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

모세도 새벽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는 늘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중보기도를 했다. 아말렉족과의 전쟁 중 산꼭대기에 올라 두 손을 들고 기도했고(출 17:11), 기도를 통해 쓴물을 단물로 바꾸었다(출 15:23-25). 홍해 앞 사면초가의 위기 속에서 기도할 때 바다를 가르는데 기적이 일어났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되자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출 14:27).

여호수아 또한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고 여러고 성을 점령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나...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수 6:15, 16, 20).

다윗도 새벽부터 일어나 기도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신세타령을 하지 않고 “새벽

을 깨우리로다”라고 외쳤다. 사울을 피해 동굴에 숨은 다윗의 마음이 편할 리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결코 기도를 쉬지 않았다. 불안하고 절망스러운 와중에도 시편 57편을 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찬송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깎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깎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시 57:7-8).

그렇게 새벽을 깨우며 기도한 다윗의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를 위한 축복이었다. 아이를 낳지 못했던 한나는 새벽에 기도하고 사무엘을 얻었다. 그녀는 한밤중부터 기도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리고 돌아가 사무엘을 얻었다(삼 상 1:19).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새벽에 회개했다.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새벽에 닭이 세 번 울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밖으로 뛰어나가 심히 통곡하였다(눅 22:56-62). 새벽에 회개하며 통곡한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한 결과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행 1:13-14). 무능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가 3천명을 회개시킬 수 있었던 위대한 전도자가 된 시발점 역시 새벽기도였다.

새벽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속해서 선포되었고, 그 기도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생애를 통해 온전히 증거되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꾼을 택하실 때도 밤을 새워 기도 하셨고, 열두 제자를 택하실 때도 기도로 선택하셨다(눅 6:12-16). 예수님은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셨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막 1:35).



조르주 드 라 투르의 ‘베드로의 회개’.

### “새벽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다” 새벽은 기적과 승리를 경험하는 시간

믿음의 조상들이 보여준 것처럼 새벽은 기적과 승리의 시간이었다. 홍해가 갈라지고, 여러고 성이 무너지고, 야곱이 하

나님을 만난 때가 바로 새벽이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내리신 양식인 ‘만나’도 새벽에 내렸다(출 16:21).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롯의 가정을 구출한 시간도 새벽이었다(창 19:15).

또한 새벽은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넘겨져 사형판결을 받은 시간이기도 하고, 부활한 시간이기도 하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 주니라”(마 27:1-2).

막달라 마리아는 새벽에 부활한 예수님을 목격한 최초의 증인이었다. 당시 여인의 몸으로 아직 어둠이 깔린 무덤을 찾는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이 그 두려움을 뛰어넘게 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 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마 28:1-2).

이처럼 새벽은 기적과 승리의 시간이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하는 최적의 시간이다.



새벽에 예수님 무덤을 찾은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

### 이 시대 크리스천들이여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용사가 되자!

마틴 루터는 “만약 내가 매일 새벽 두 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는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매일 3시간씩 기도하지 않고는 일 어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요즘 세상이 어지럽고 어둡다. 희망의 불씨를 되살려야 한다. 이 시대를 사는 크리스천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 중요하고 위중한 시간에 잠들어 있는 성도, 새벽에 불이 꺼진 교회는 위험하다. 우리 모두 새벽을 깨우자.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 가정과 교회, 차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부르짖자. 바로 내일부터 새벽기도의 용사가 되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대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출 27:21).

# People

만나고 싶었습니다

약력이 화려하다. CGNTV의 새 대표 이용경 장로(서초B공동체)말이다. 그는 경기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 UC버클리 전자공학 박사, KTF, KT 대표이사, 카이스트 겸임교수, 제18대 국회의원(창조한국당 원내대표) 등을 지냈다. 화려한 이력보다 신앙이 참되다. 바른 신앙과 건강한 공동체를 표방하는 그가 CGNTV에서 어떤 모양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칠지 벌써부터 기대가 크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송 CGNTV”

인생 마지막 헌신 ... “직원들과 교감하고 화합할 것”

지난 6일, CGNTV 대표로 취임한 그를 만났다. 무섭고 카리스마 있는 사람인 줄로만 알았는데 아니었다. 여유와 인자함이 돋보였다. 표정에서부터 따뜻함이 묻어있었다. 전문적인 커리어를 갖춘 인물인 만큼 자신감이 가득할 줄 알았는데 참 겸손했다. “CGNTV 대표가 되어 걱정도 많고, 겁이 난다”고 고백하는 그의 모습에 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겸손이었다.

### 그 아버지께 그 아들

이용경 장로는 모태신앙인이다. 이용경 장로의 아버지부터 예수를 믿었다. 부모의 신앙이 그에게 지대한 영향을 줬다.

“아버지께서 의사가 되려고 세브란스의과대학에 몇 번이나 응시했는데 번번이 떨어지고는 무작정 학교를 찾아갔대요. 그때 김명선 박사가 예수 안 믿어서 떨어졌다고 했나 봐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바로 교회를 찾아가서 세례를 받게 해달라고 했더니 교회에 6개월은 나와야 한다고 했대요. 그렇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용경 장로의 아버지 故 이형래 장로는 안양제일교회(최원준 목사 시무)를 세우고, 지금의 교회 부지를 기증한 사람이다. 안양제일교회가 교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는 무려 10년 동안 성도들이 자신의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했다.

“전쟁이 나고 피난하기 직전에 아버지께서 장로장립을 받았던 게 지금도 기억나요. ‘죽도록 충성하라’며 장로안수를 줬다고 하더라고요. 남하하던 날 새벽에 집을 싸고 가족예배를 드리던 것도 기억나요. 그날 찬송 ‘나의 갈 길 다 가도록’을 불렀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며 노래하고, 피난길에 올랐죠. 어릴 적 그 기억이 제 믿음의 기반입니다.”

이용경 장로는 세계 최초로 상용 장거리 광통신망을 개발한 사람이다. 2001년 한솔엠닷컴을 합병해 KTF를 탄생시킨 주역이기도 하다. 2002년에는 민영KT의 초대 대표를 역임했다. 공학도로서 누구에게나 인정받을 업적을 남겼고, 저명한 기업에서도



CGNTV 대표로 취임한 이용경 장로.

일했다. 업적과 커리어만 봐도 공학도로서의 포부가 컸을 것 같은데 그가 공학도의 길을 걷게 된 이유는 단순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못 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학기술을 발달시켜 산업화 시키자는 인식이 많았어요. 공학과를 나오면 취직도 잘됐고요. 그래서 뭐 좀 해보겠다는 사람들이 공학도가 되고 싶어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시대 분위기에 휩쓸려 공학도의 길을 선택했다는 말이다. 차근차근 성실하게 공학도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갔다. 미국 유학을 가서 박사 학위를 받고, 유명 연구소에서 광통신망 관련 연구를 했다.

“아버지께서는 자식들에 대한 교육열이 대단하셨어요. 집은 못 사줘도 유학은 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대로 그 어려웠던 시절 아들 세 명을 미국 유학을 시켜 주셨어요. 아무리 의사 별이가 좋다고 해도 쉽지 않을 텐데 말이죠. 형들이랑 같은 집에서 오순도순 산 기억이 별로 없어요. 전쟁 중에는 형들이 군대 가 있었고, 전쟁 후에는 한 명씩 차례대로 유학길에 올랐거든요.”

모태신앙이지만 그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은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밟던 때였다. 연구의 어려움, 타국에서의 직장생활 문제 등으로 몹시 힘들어 하고 있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허락하

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그때 크게 깨달았습니다. 자만심을 내려놓고 나서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 하용조 목사의 비전 구체화시킨 장본인

이용경 장로는 CGNTV와 인연이 깊다. 故 하용조 목사가 생전에 이 장로에게 오지에 나가있는 선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세계를 하나로 묶는 통신망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 통신망이 바로 CGNTV가 됐다. 위성 방송에 대한 개념도, 기술도, 여건도 불확실했던 때 하용조 목사의 꿈과 비전을 구체화시킨 장본인이 이용경 장로다.

“당시 하용조 목사님은 전 세계를 연결하는 방송을 하려고 6개 위성망을 가진 통신을 찾고 계셨어요. 당시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곳은 KT밖에 없었습니다. 마침 그때 제가 KT 대표로 재직하고 있었기에 그 일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CGNTV가 탄생하게 된 과정이 그리 쉽지는 않았다. 하용조 목사의 뜻을 처음 들었을 때 그는 전문가 입장에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하나의 교회가 전 세계를 아우르는 위성망을 운영하겠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꿈도 못 꿀 일이었다. 그러나 온누리교회는 그것을 해내고 말았다. 하용조 목사의 멈추지 않고 계속 성장하는 선교에 대한 꿈과 열정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렇게 탄생한 CGNTV가 지금 전 세계를 연결하는 선교 방송으로 성장하게 됐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 CGNTV의 고객은 하나님

CGNTV 대표로 취임하면서 남다른 포부도 생겼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실현하는 CGNTV가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CGNTV 사역은 전문가가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전문가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CGNTV입니다.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을 목도한 곳이 CGNTV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더 큰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더 큰 책임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CGNTV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꿈과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목격하고, 더 큰 감동을 받고, 더 큰 책임감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가 CGNTV를 통해 이룰 마지막 꿈과 비전이다.

세계적인 연구소에서 일해보고, 우리나라 대표적 통신회사를 경영도 해봤고, 국회의 원으로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발로 뛰던 그가 CGNTV 대표만큼 의미 있는 일이 없다고 단언했다.

“지금 제 삶에서 가장 도전적이고, 의미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제 인생 마지막 헌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CGNTV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습니다. CGNTV의 고객은 하나님입니다. CGNTV가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송이 되도록, 직원들과 교감하고 화합하겠습니다. CGNTV를 위해 기도해주시요.”

### 이용경 장로 이력

서울대 전자공학과 졸업  
미국 UC버클리 전기공학 박사  
KAIST 정보미디어경영대학원 교수  
前 KTF, KT 대표이사 역임  
제18대 국회의원(창조한국당 비례대표)  
2004년 온누리교회 장로 장립  
현재 CGNTV 대표



## “또 하나의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

### 새노래교회 개척하는 김영진 목사

김영진 목사가 서울시 서대문구 수색로 40 우창빌딩 5층(경의중앙선 가좌역 앞)에 '새노래교회'를 개척했다. 김 목사는 11년 동안 온누리교회 성인공동체와 예배본부 등에서 사역했다. 특히 예배본부장으로 섬기면서 온누리교회의 예배를 더욱 빛나게 했다. 예배학교를 개설해 예배자를 세우는 일에 헌신 했으며, 다수의 찬양을 작곡하고 앨범을 발매하기도 했다. 김 목사는 새노래교회에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렇게 설명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며,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비전입니다.” 새노래교회는 지난달 27일 입당예배를 드렸다. 매주 주일 오후 2시 주일예배, 금요일 밤 8시 30분 금요성령 집회, 평일 오전 6시 20분 아침말씀기도회가 진행된다. 다음은 김영진 목사와의 일문일답.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 목회자로서 헌신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저는 성악가가 되고 싶습니다. 성악을 전공하고 유학을 결심했었습니다. 그때는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학 중에 회심하고, 바울처럼 인생의 성공을 위한 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길이 찬양 사역자로서의 삶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목회자로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 온누리교회에서는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2006년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산본안산공동체와 예배사역을 담당했습니다. 2006년 가을, 목사 안수를 받았고 다음해에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예배사역과 성북공동체를 섬겼습니다. 그 후 얼마인 온누리교회에서도 3년 동안 사역했고, 다시 서빙고로 돌아와 예배본부장, 광명공동체, 찬양사역공동체, 용산공동체를 섬겼습니다.”

####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하면서 특별히 기억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억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전도사 시절 산본안산공동체 대심방을 갔을 때가 기억납니다. 성도님들이 얼마나 따듯하게 맞아주시던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배인도자로 사역하던 사람이 목회라는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예배 사역자와 목회자를 구분하는 경우가 많은데 온누리교회에서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어서 무척 좋았습니다. 얼마인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하면서도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행정, 목회, 예배 등 목회 전반을 두루 경험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힘들었지만 영적으로 충만하고 유익한 경험이었습니.”

#### 교회 개척을 결심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3년 전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다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같은 교회를 세우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故 하용조 목사님이 꿈꾸셨던 바로 그 교회, 온누리교회 같은 교회가 또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 목사님에게 주셨던 그 교회의 꿈을 저에게도 주셨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3년 전부터 기도하면서 내가 말하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지를 점검하고 또 점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큐티하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초대교회들은 사라지고 그 터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데 왜 세상의 교회는 유한한

월 말부터 기도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7일에 입당 감사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2017년 1월에 창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개척이라는 사명을 주셨기에 충성을 다해 감당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크리스천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고 그 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 그렇다면 어떤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까?

“예배가 살아 있는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 찬양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로 세우고 싶습니다. 또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다. 바로 앞에 가좌역과 버스정류장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입니다. 그러나 건물 주변에 열악한 환경에서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특히 이단, 점집이 많은 영적으로 좋지 않은 환경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 이 지역에 복음의 빛을 비추라는 사명을 주셨다는 믿음으로 이 곳으로 장소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 기도제목을 나눠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울 것인가가 가장 큰 기도제목입니다. 수많은 교회 중 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교회의 선한영향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려는 노력과 몸부림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겉모습만 좋은 교회가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교회공동체를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온누리교회 성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이 온누리교회에서 목회한다고 하면 더 인정해주고, 더 칭찬해주고, 더 주목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그 모습이 진짜 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회 안에만 머무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뜻과 비전을 세상에 전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7년 된 성도는 떠나라는故 하용조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필요한 곳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새롭게 태어난 아기와 같은 새노래교회를 위해서 온누리교회가 어머니교회가 되어주셔서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새노래교회

홈페이지: newsongchurch.kr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색로 40 우창빌딩 5층  
김영진 목사: 010-9588-8667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며,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비전입니다.”

지에 대해 고민하면서 초대교회는 없어졌지만 새로운 교회들이 개척되고 있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회개척을 멈추고 포기하면 교회의 역사가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면서 교회개척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 새노래교회 개척과정은 어땠습니까?

“주위에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왜 좋은 교회에서의 사역을 그만두려 하느냐는 질문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주셨는데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한번뿐인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었습니다. 교회개척을 준비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먼저 제 아내와 함께 나누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분들이 모여 9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는 성경 대신 다른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성경으로 채우는 회복을 희망합니다.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공동체가 바로 제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도 소망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전도공동체를 꿈꾸고 있습니다.”

#### 교회 장소를 남가좌동으로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방송문화 영역에 관심이 많아서 상암동에 개척하려고 준비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환경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을 알아보다가 우연히 은행을 방문했는데 건물을 임대한다는 간판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래내시장 바로 옆 건물인데 오래전부터 이 지역의 중심가와 같은 역할을 했던 곳입니

온누리교회와 산마루교회가 함께

# “작은 선행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 힘하고, 꺾은일이라 해도 멈출 수 없는 이유

둘이 하나 되니 이보다 좋을 순 없다. 온누리교회와 산마루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다. 산마루교회(이주연 담임목사)는 노숙자들을 섬기는 교회다. 힘하고, 꺾은일이라 기피하는 사역인데 얼마나 열심인지 모른다. 온누리교회와 산마루교회는 올해 1월부터 동역하고 있다. 온누리교회는 시설 마련을 위한 헌금을 전달했고, 마포공동체는 산마루해맞이대학에서 저녁식사 섬김, 목욕탕시설 마련을 위한 음악회를 후원했고, 신용산공동체와 마포공동체가 노숙자들과 함께 서울역 광장을 청소하고 있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산마루해맞이대학에 다니는 노숙인들에게 저녁을 배식해주고 있다.



지난달 27일 열린 노숙인을 위한 자선 음악회.

이슬을 맞으며 잠을 자는 사람. ‘노숙자(露宿者)’는 글자 그대로 이슬을 맞으며 잠을 자는 사람이다. 바깥에서 자는 사람을 의미한다. 집 없이 이곳저곳에 떠돌아다니며 겨우 누울 곳을 마련해야 하는 파란만장한 사람들이다. 요즘같이 추운 겨울은 노숙자들에게 너무 가혹하다. 매해 거리에서 사망하는 노숙자가 350명 정도라고 한다. 하루에 한 명꼴로 죽어나가고 있는 셈이다. 그들을 안아 줄 따뜻한 체온이 필요하다.

### 뜨끈한 육개장 한 그릇

김이 모락모락 나는 육개장 한 수저에 얼어붙은 몸이 녹는다. 고기며 야채며 푸짐하게 들어서 허기를 달래는데도 그만이다. 고봉으로 찢인 쌀밥까지 한 술 말아 먹으니 이 세상 근심걱정이 사라졌다.

여기는 산마루교회 식당이다. 산마루해맞이대학에 다니고 있는 노숙자 25명에게 따끈한 밥과 육개장 한 그릇 대접하려면 얼마나 부산을 떨어야 하는지 모른다. 그도 그럴 것이 노숙자들에게 밥 한 끼는 생명과 다름없다. 밥을 애타게 기다리는 눈빛이 애절하다 못해 간절하다. 배식하는 손길이 바빠질 수밖에 없다.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퍼 날라도 모자랄 지경이다. 구부정한 자세로 분주하게 일하다 겨우 허리 한번 펴본다. 한숨이 절로 나온다. 그래도 기분이 좋다. 이마에 흐른 땀을 닦아내는 그들은 마포공동체다. 이태열 장로는 올해 1월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서 이주연 목사의 설교를 듣고 노숙자 사역에 눈을 떴다.

“이주연 목사의 설교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노숙자들을 향한 사랑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도 동참해야겠다고 작정하고 산마루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올 3월부터 본격적으로 노숙자 섬김을 시작했다. 매주 화요일 산마루해맞이대학에 다니는 노숙자들에게 저녁을 배식해주고 설거지도 했다. 이 장로를 비롯한 마포공동체 지체들이 동참했다.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이주연 목사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렸다. “마포공동체는 119 구조대와 같습니다.” 마포공동체가 산마루교회와 동역하기 전에는 네 명의 성도가 8년 넘게 노숙자들을 섬기고 있었다. 점심 무렵부터 장보고, 요리하고, 설거지까지 마치면 어둑해져서야 집에 갈 수 있었다. 일이 얼마나 힘들던지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바로 그때 한줄기 빛이 찾아왔다. 온누리교회 마포공동체가 협력하기로 한 것. 순 헌금으로 과일과 간식도 준비해 왔다. 마포공동체의 동참으로 산마루교회의 식탁이 더욱 풍성해졌다.

### 해맞이공동체의 간절한 소망

산마루교회는 10년 전부터 노숙자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 노숙자들이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자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3년 전부터는 빨래와 목욕 시설 마련을 위해 ‘노숙인을 위한 자선 음악회’를 열고 있다.

산마루교회가 노숙자를 섬기기 시작한 것은 2006년부터다. 어느 날 노숙인 서너 명이 교회를 찾아왔다. 이주연 목사가 그들에게 빵과 커피를 나눠줬다. 소문이 삼시간에 퍼졌다. 더 많은 노숙자들이 교회를 찾아왔다. 그렇게 한 명 두 명 늘어나던 노숙자들이 지금은 100명이 넘는다. 노숙자들이 늘어나면서 이 목사의 고민이 깊어졌다.

“노숙자들을 가까이 대할수록 돕고 싶은 마음이 커지더라고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의식주를 채워주면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고 싶더라고요.”

핵심은 자립이었다. 이 목사가 묘책을 떠올렸다. ‘산마루사랑의농장’이 바로 그것이다. 노숙자들이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에 안성맞춤이었다. 노숙자들이 함께 농사를 짓고 자활하고 있는 공동체를 ‘해맞이공동체’라고 부른다. 산마루해맞이대학은 노숙자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들의 개인위생 관리를 위해 하루빨리 빨

래와 목욕시설이 필요했다. 겨울에는 더욱 그랬다. 하나밖에 없는 속옷과 겉옷으로 세찬 추위를 견뎌야 했기 때문이다.

노숙자들이 100원, 200원씩 한 헌금을 모았다. 그들의 삶도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다. 삶의 목표도, 의욕도 없었던 그들에게 목표가 생겼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았다. 해맞이공동체 김영진 팀장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

“2014년부터 빨래와 목욕시설 마련을 위한 음악회를 열고 있어요. 빨리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음악회가 열렸다. 지난달 27일 대한성공회 서울 주교좌교회에서 ‘노숙인을 위한 자선 음악회’가 열렸다. 이날 음악회에서는 노숙인 15명으로 구성된 해맞이찬양대가 ‘예수사랑하심’과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해 찬양했다. 그들이 무대에서 있는 것만으로도 감격이었다. 듣는 이들의 심금을 울리는 데에도 부족함이 없었다. 그 어떤 공연보다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산마루교회 전상기 집사도 그 자리에 있었다. 그도 노숙자였다. 서울역에서 7년 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다. 걷는 것조차 어려웠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 회복되었다. 음악회 무대에 오른 그가 이렇게 말했다.

“빨래와 목욕시설을 만들고자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입니다. 가정과 고향 같이 언제 가도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서입니다. 사랑과 정이 있는 곳 말입니다.”

그 마음이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다. 산마루해맞이대학을 섬기고 있는 마포공동체가 음악회 티켓 100장을 후원했다. 김난아 성도(성동광진)는 “평소 노숙자 사역에 관심이 많았는데 실행을 못하고 있었다”면서 “이번 음악회를 통해 노숙자들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 아름다운 사람들의 아름다운 하모니

음악회 열기가 아직 식지 않은 다음날 월요일

일 아침 7시 서울역. 출퇴근하는 사람들로 무척 분주하다.

서울역 광장 시계탑 밑에 밀짚모자를 쓴 한 무리가 보였다. 신용산공동체와 마포공동체 지체들이 산마루교회 노숙자들과 함께 서울역 광장을 청소하러 왔다. 그때였다. 누군가 기자의 팔을 툭 건드렸다. 서울역 광장을 청소하는 일행을 본 한 노숙자가 쓰레기봉투에 담배꽂초와 휴지를 주워왔다. 아침밥을 먹으러 온 노숙자 서혜수 씨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노숙자들이 서울역 광장을 청소하고 있는 모습이 신기했기 때문이다.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고 좋네요. 서울역이 밝아지는 것 같아요.”

작은 선행이 또 다른 노숙자들에게 전달됐다. 하루에 한 명씩에게만 선행이 전달되어도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이 분명하다. 놀라운 일이 또 있다. 노숙자들 사이에서 젊은 청년들이 보였다. 경희대학교 학생들이었다. 노숙자들을 섬기고 싶었는데 어떻게 할지 몰라 배우러 왔다고 했다. 참 기특했다.

서울역 광장을 청소한지 30분 만에 다른 공간이 됐다. 해맞이공동체라는 이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이른 아침 수고하고 먹는 따뜻한 국밥 맛도 그만이었다.

서울역 광장 청소는 산마루교회 명예장로 전홍원 전 국무총리가 “우리가 서울역을 깨끗하게 청소하자”는 제안에서 시작됐다. 이주연 목사가 온누리교회 마포공동체 리더십들에게도 동참해달라고 부탁했다. 때마침 이재훈 담임목사도 서울역을 청소하는 사역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 이날 청소에는 이재훈 담임목사도 동참했다.

마포공동체는 산마루교회 산마루해맞이대학에서 저녁식사 배식과 설거지를 섬기고, 신용산공동체와 마포공동체는 노숙자들과 함께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 서울역을 청소하고 있다.

온누리교회와 산마루교회가 만나서 세상을 밝고 따뜻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그 아름다운 사람들이 또 어떤 열매를 맺을지 기대가 크다.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대학청년부

#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 11개 공동체 이웃들에게 사랑애틀 나눔 실시



어르신이 여호수아공동체 청년의 손을 잡아주며 활짝 웃고 있다.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잡으면서 인사하는 어르신의 얼굴에 행복이 가득했다. 20분 남짓 이야기 나눴을 뿐인데 그새 정이 들었나보다. 헤어지려니 어르신도 청년들도 쉬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들은 영락없는 가족이었다.

지난 3일과 10일, 11개 대학청년부공동체가 사랑애틀나눔을 실시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쌀, 반찬, 생필품 등을 나눠 주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다. 그 현장에 동행했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지난 3일 이른 아침, 여호수아공동체 소속 청년 300여 명이 대림중학교 대강당에 모였다. 이웃들에게 그리스도 사랑을 전하려는 청년들이 이렇게나 많다. 일주일동안 기다려온 별미인 달콤한 늦잠도 마다하고 발 벗고 나섰다. 비누세트, 칫솔, 샴푸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선물 할 생필품을 직접 포장했다. 정성과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다. 선물 꾸러미에 스티커를 붙이는데 온누리교회가 아니라 지역교회 이름과 전화번호가 새겨져 있었다. 지역교회와 함께 사랑애틀나눔을 실시하면서 지역교회를 소개하기로 한 것이다. 그 마음이 참 귀했다.

### 이정남 할머니와 김주형 형제

71개 팀으로 나뉜 여호수아공동체 소속 청년들이 관악구 대림동 일대로 흠어져 있다. 150가구를 방문할 예정이다. 대림동은 오랫동안 터를 잡고 살아 온 어르신들과 중국동포들이 많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이다. 하루 벌여 하루 먹고사는 노동자가 대부분이다. 생활이 어려운 것은 중국동포 뿐만이 아니다. 여호수아공동체가 방문하는 집마다 환경이 매우 열악했다. 다리를 쓰지 못해 몇 십 년 동안 집에서만 홀로 지낸 할머니, 손주들 돌보려고 수술이 끝나자마자 집으로 온 할머니 등 딱한 사연도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잃지 않는 그들의 모습에 숙연해졌다.

김금남 조장과 조원들의 걸음도 바빴다. 한 시라도 빨리 쌀, 반찬, 생필품을 전달하기 위해서 서둘렀다. 굶이진 골목으로 들어서자 어르신 한분이 청년들을 반겨주셨다.

“여기로 들어와요. 이 방이 제일 따스니까.” 할머니의 안내로 방에 들어섰다. 그런데 할머니의 한쪽 팔이 불편해보였다.

“화장실에서 거실로 나오다가 넘어져서 그러요.”

두 달 정도 김스를 해야 한다고 했다. 청년들이 빨리 팔이 나으시기를 바란다고 인사를 했을 뿐인데 할머니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얼마나 사랑이 고프고, 메말랐으면...

청년들은 그 할머니를 더 살뜰하게 챙겼다.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야기꽃을 피웠다.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할머니의 입가에 미소가 끊이지 않았다. 어느새 교회에 대한 마음의 문도 활짝 여셨다.

“어디 교회라고요? 이렇게까지 해주시 교회 가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봉사를 마친 여호수아공동체 청년들이 삼일 교회에 모였다. 여기저기서 받은 은혜와 간증을 나누느라 여념 없었다. 그때 김주형 형제가 앞으로 나와 이정남 할머니 댁에서 있었던 일을 간증했다.

“이정남 할머니 댁에는 예수님 사진과 말씀이 걸려있었습니다. 저희가 방문했을 때 할머니는 시편을 읽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매우 평안해보였지만 할머니의 상황은 그렇지 못

했습니다. 이정남 할머니는 다리와 허리가 좋지 않아서 10년 넘게 밖에 나오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할머니께 저희가 부족 해드릴 테니 함께 밖에 가자고 했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하신 줄 아시나요?”

이정남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걱정 말아.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으로 선포하면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아도 혼자 나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10년 동안 믿고 기도하고 있어.”

김주형 형제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다. 시편의 기자처럼 할머니의 믿음은 굳건했다. 오랜 세월 동안 풍파를 겪으면서 쌓아올린 믿음이 틀림없었다. 김주형 형제가 간증을 이어갔다.

“우리는 작은 고난만 있어도 말씀 지키는 것을 힘들어하잖아요. 그런데 이정남 할머니는 끝까지 간절하게 믿음을 붙들고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는 쏟아지는 눈물에 말을 잊지 못했다. 조금 뒤 힘겹게 입을 열었다.

“오늘 만난 이정남 할머니를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감사할 것입니다.”

### 마음 아프고, 가슴 시린 사연들

사랑애틀나눔을 실시하는 곳마다 마음 아프

고, 가슴 시린 사연들이 있다. 구구절절한 사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청년들이 이웃들에게 더 열심히 달려갈 수밖에 없는 이유다.

W공동체는 재한몽골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을 만나러 갔다. 팀 당 네댓 가정을 방문했다. 김진아 자매팀도 다섯 가정을 방문했다. 방문한 다섯 집 중에서 한 가정만 일행을 방 안으로 초대했다. 방안에 들어서자마자 깜짝 놀랐다.

“정말 작은 반지하방에 두 가정이 살고 있었어요. 무려 8명이 그 좁은 곳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다리가 불편해 보이는 자매가 있었는데 수술을 받으려고 온 가족이 한국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매는 다리가 아파서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있었다. 그 자매와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아려왔다.

“검사는 끝났고 수술만 하면 되는데 수술비가 문제더라고요. 너무 비싸서 이리저리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몽골로 돌아가야 될지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수술비가 5천만 원이라고 한다. 그 큰돈이 그들에게 있을 리 만무했다. 한국말도 하지 못하는 그 자매의 부모들이 경제생활을 하는 것도 어려워보였다.

“그렇게 열악하고, 힘든 상황인데도 너무 해맑더라고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었어요. 잊지 않고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대학부 하늘공동체는 관악구 어르신들을 방문했다.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었다. 차상위계층은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 이상, 120% 이하인 ‘잠재 빈곤층’을 말한다. 파지, 재활용 캔 등을 모아서 하루 몇 천원으로 겨우 지내고 있다. 하늘공동체 임창수 형제는 이날 만난 두 명의 어르신이 유난히 기억에 남았다.

A할아버지를 찾아갔는데 집 앞 마당에 계셨다. 임창수 형제와 팀원들이 A할아버지께 건강이 어떠신지 여쭙었다. 특별히 아픈 곳은 없다고 하시는데 어딘가 모르게 불편해 보였다. 사실은 이랬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파지를 줌고 있는데 얼마 전 사고를 당했다고 한다. 청년들이 걱정할까봐 괜찮다고 하신 거였다. 사고 이후에도 쉬지 못하고 파지를 주우러 다니고 계셨다. A할아버지를 생각할수록 마음이 아려왔다. B할머니도 사정이 비슷했다. 주말도 없이 일하면서 네 딸을 키웠다. 그렇게 열심히 산 B할머니에게 남은 것이란 작은 단칸방뿐이다. 딸들과 관계가 소원해 보였다. 이날만큼은 청년들이 손자손녀가 되기로 작정했다. 할머니께 애교도 부리고, 말벗이 되어드렸다. 임창수 형제는 이날 정말 보고 싶은 사람이 떠올랐다.

“친할머니 생각이 많이 났어요. 지금까지 못 해드린 게 생각나더라고요.”



온누리장로합창단이 지난 3일 제4회 정기연주회를 가졌다.

## 장로합창단 제4회 정기 연주회

동요, 가곡, 클래식, 찬송, 드라마 어우러진 작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시 150:6).

지난 3일, 양재 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제4회 온누리장로합창단(이하 장로합창단) 정기연주회가 열렸다. 이날 정기연주회에는 온사랑합창단, 도곡챔버오케스트라, 온누리교역자합창단도 출연했다.

장로합창단의 제4회 정기연주회는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는 ‘남겨진 사랑과 그리움, 바램 갈라온 서트’를 주제로 진행됐다. 온사랑합창단, 장로합창단, 교역자합창단, 도곡챔버가 동요와 찬양, 가곡과 클래

식을 연주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를 주제로 진행된 2부에서는 장로합창단원들의 스킷드라마 공연이 이어졌다. 스킷드라마에서는 장광 장로가 재판관, 윤석우 장로와 송영범 장로가 신청인과 증인역을 맡아 법정에서 예수의 무죄를 증언하는 내용이었다.

장광 장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자, 통치자, 구원자임을 이 법정에서 선포하노라. 여기 모인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바라보고, 바로 감당해야 함을 선포하는 바이

다!”라고 선포하고, 장로합창단이 승전가를 부르자 관객들로부터 환호와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다.

박현규 장로(장로합창단)는 “많은 분들의 헌신, 수고, 기도 덕분에 정기연주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했고, 이지원 자매(도곡챔버)는 “나이가 상관없이 뜨겁게 찬양하는 장로님들을 보고 많이 배웠다”고 고백했다. 이상진 목사(푸른누리공동체)는 “장로님들의 연륜과 믿음이 묻어난 뜻 깊은 공연이었다”고 말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 KoJaMA 합동 크리스마스 집회

8개 교회 일본어예배부 연합

지난 4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경찬홀에서 ‘KoJaMA 합동 크리스마스 집회’가 열렸다. KoJaMA(Korea Japanese Ministries Association)는 ‘한국일본어미니스트리협의회’의 준말이다. 한국에 있는 일본어예배부의 연합모임을 의미한다.

이번 KoJaMA 합동 크리스마스 집회에는 일본복음선교회, 할렐루야교회, 지구촌교회, 오륜교회, 사랑의교회, 온누리교회 등 8개 교회 일본어예배부가 연합했다. 각 교회별로 찬양과 특순, 워십댄스, 핸드벨 연주 등을 선보였다.

말씀은 지구촌교회 김기원 목사가

선포했다. 김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사랑을 일본에 전하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연합집회에 참석한 김자영 성도(여의도순복음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집회였다”고 말했고, 다카미자와 에이코 목사(할렐루야교회)는 “한국에 있는 일본어예배공동체가 서로 경쟁하지 않고 협력했기 때문에 즐거운 크리스마스 합동집회를 만들 수 있었다”며 감격했다. 나문채 장로(온누리교회)는 “이번 집회를 계기로 일본과 한국 교회가 더욱 연합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 정현주 기자

## 23기 전도폭발훈련 70명 수료

23기 전도폭발훈련에서 수료생 70명을 배출했다. 지난 8월 30일부터 13주 동안 이어진 전도폭발훈련은 주간반과 야간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이번 23기 전도폭발훈련에

서는 1단계 35명, 2단계 14명, 3단계 13명, 4단계 8명이 수료했다.

24기 전도폭발훈련은 2017년 3월 6일부터 13주 동안 진행된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 강남B·하나공동체 통일탁구대회 개최

강남B공동체와 양재 하나공동체(탈북민 공동체)가 주관하는 통일탁구대회가 12월 17일(토) 오후 2시 서빙고 온누리 기독교문화전시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통일탁구대회에는 온누리 탁구선교팀과 탈북드림탁구팀(탈북자로 구성된 탁구팀)이 출전한다. 탈북자들의 특별간증도 이어진다. 참가비 1만원.

문의: 010-3772-3686

/ 정현주 기자

## 양재 의무실 봉사자 모집

양재 온누리교회 의무실에서 봉사자를 모집한다. 매주 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운영된다. 선교사, 외국인노동자, 탈북민, 햇볕트리티니대학교대학원 학생, 성도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진료를 하고 있다. 일차 진료와 상담, 응급처치 등이 이뤄지고 있다. 내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의사들을 기다리고 있다. 문의: 02-3215-3786

## 요코하마 6년만의 임직식

일본인 성도 3명 안수집사 임직

요코하마 온누리교회에서 6년 만에 임직자가 탄생했다. 지난달 25일 요코하마 온누리교회 안수집사 임직식이 거행됐다. 이날 일본인 성도 세 명(노조에 오사미, 마루야마 토시아키, 마루야마 히데미)이 안수집사 임직을 받았다. 무려 6년 만에 열린 임직식이었다. 한국인 성도가 아니라 일본인 성도가 임직을 받았다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제 요코하마 온누리교회 안수집사가 5명이 됐다(한국인 2명, 일본인 3명).

6년 만에 벌어진 경사를 축하하러 동경 온누리교회 문봉주 목사와 야

치요 온누리교회 니시아마 신이치 목사도 한결음에 달려왔다.

서현 목사(요코하마 온누리교회 담당)는 “이번에 안수집사 임직을 받은 일본인 성도 세 명 중 두 명이 청각장애인”이라고 밝히면서 “신체의 장애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요코하마 온누리교회는 2003년 6월 11일 창립됐다. 현재 170여 명의 성도들이 출석하고 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찬양과 수화통역을 하고 있다.

/ 정현주 기자

## NGO ‘더멋진세상’ 창립 6주년 감사예배

이재훈 담임목사, 김창옥 사무총장 등 참석

NGO ‘더멋진세상’이 창립 6주년 감사예배를 드렸다. 지난 8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순형홀에서 드린 NGO 더멋진세상 창립 6주년 감사예배에는 이재훈 담임목사를 비롯한 교회 리더십들과 NGO 더멋진세상 관계자, 내빈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재훈 담임목사는 “NGO 더멋진세상이 이웃을 단순히 배불

리 먹일 뿐만 아니라 영성도 길러줘서 또 누군가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NGO 더멋진세상 김창옥 사무총장은 “지난 6년 동안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응원해주고 기도해준 덕분에 달려올 수 있었다”면서 “내년에도 쉬지 않고 달려가는 NGO 더멋진세상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 소프라노 김영미와 함께하는 ‘성탄 LOVE 멜로디’ 콘서트

12월 14일 오후 7시 30분 양재 사랑홀

소프라노 김영미와 함께하는 ‘성탄 LOVE 멜로디’ 콘서트가 이번 주 수요일(14일) 오후 7시 30분 양재 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막 오른다. 이번 콘서트에는 세계적인 프리마돈나 김영미 권사와 그녀의 제자들, 오르간 연주자 김은희가 출연할 예정이다. 이번 콘서트는 무료 입장이다. 공연 중간에 헌금을 봉헌하는 시간이 따로 있다. 봉헌한 헌금은 하나공동체를 섬기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문의: 02-573-9686

/ 정현주 기자

## 예비 중1을 위한 리더십 프로그램

1월 4일부터 25일까지 수요일 오전 10시

서빙고 상담실에서 예비 중학교 1학년 학생을 위해 ‘청소년 리더십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1월 4일부터 25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서빙고 선교관 401호에서 진행된다.

청소년 리더십 프로그램에서는 달라지는 교육환경, 학업, 친구, 선생님으로부터 경험할 수 있는 갈등

과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올바른 리더십으로 거듭나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자신을 알고 타인을 이해하기, 나의 성격유형과 맞는 학습 스타일, 화내는 것도 선택이야, 스트레스 격파 등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된다. 회비는 5만원. 문의: 02-793-2998

/ 김영선 기자

## ■ 임직자 간증



/ 장덕자 집사(서초C공동체)

온누리교회에 온 지 15년 만에 안수집사 직분을 받았다. 임직자 스쿨에 참여하면서 부족한 나에게 직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했다. 매번 부담감 때문에 직분을 미루고 있었던 것을 반성했다. 임직사에서 산마루교회 이주연 목사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없어도 직분만은 가지고 간다”는 말씀을 듣고 직분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나는 믿을 없는 가정에서 5남매의 장녀로 태어났다. 대학에 입학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집안의 반대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을 포기할 수 없었다. 더 강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다. 새벽에 성경통독을 하면서 확고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었다. 인격적인 성령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경험했다.

오랜 핍박에도 부모님과 형제자매의 구원에 대한 기도를 절대 쉬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들어가셨을 때 목사님을 모시고 갔다. 아버지는 병상에서 신앙고백을 하고 구원받고 평안하게 천국에 가셨다. 가장 힘이 들었던 것은 오랜 세월 불심으로 살아오신 어머니의 구원이었다. 철옹성 같은

## 가장 큰 효도

어머니는 시간이 갈수록 복음을 전하는 나와 대립했다. 요지부동인 어머니를 보며 포기하고 싶을 때가 정말 많았다.

지금은 대학생이지만 당시 초등학교생이던 아들이 40일 새벽기도회에서 할머니를 꼭 전도하겠다고는 기도를 듣고 나도 함께 눈물로 기도했다. 우리는 날마다 새벽을 깨워 기도했다. 손주의 할머니를 향한 눈물의 기도가 마음을 녹였다. 어머니가 온누리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다. 어머니도 새가족 과정을 끝내고, 세례를 받고, 수술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다. 나를 막고 화를 내던 형제자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승리한다는 것을 주 안에서 체험했다.

부모님이 천국에 가신 것이 가장 큰 기쁨이다. 나는 요즘 부모님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집사님들과 함께 릴레이 중보기도를 하고 있다. 부모님께 드리는 가장 큰 효도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시민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온누리교회 안수집사로서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조절계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내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살 것이다.

## ■ 5분전도학교 수료 간증



/ 장빛 선교사

## 전도를 멈출 수 없다

처음 5분전도학교를 접했을 때는 흔히 하고 있는 전도와 관련된 스쿨이라고 생각했다. 가까운 권사님이 지난 기수에 5분전도학교를 다니는 모습을 보았다. 전도전문을 열심히 외우고, 열정적으로 임하시는 그 권사님의 모습이 선교사인 내게 큰 도전이 되었다. 늘 전도하는 삶을 산다고 생각했던 나에게 전도와 관련된 스쿨이 꼭 필요했고, 선교지와 다르게 국내에서는 전도하지 않는 내 모습을 반성하면서 5분전도학교에 등록했다.

5분전도학교 첫날, 장로님의 메시지와 전도전문이 새롭게 다가왔다. 전도의 틀이 잘 정리되어 있어서 누구나 쉽게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이 전도전문을 러시아어로 바꿔서 나도 사용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또 연세 많으신 집사님이 긴 전도전문을 외우면서 복음전도에 대한 열정을 쏟으시는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

매주 전도하러 나가면서 5분전도학교가 좋은 모델이 되어서 한국뿐만 아니라 열방에서 전도할 때도 귀하게 사용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안산M센터 주변에서의 전도실습은 정말 귀한 시간이었다. 주로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다. 의외로 어렵지 않은 반응을 보이는 것이 감사했다. 또한 안산M센터가 이미 많은 이주노동자들에게 알려져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나 역시 타국에서 이방인의 삶을 살고 있기에 이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이주민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갈 때 귀한 열매들이 맺힐 것이다.

고속터미널에서 전도를 하면서 한국 땅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오해와 좋지 않은 선입견이 깊이 뿌리박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했기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저토록 차갑게 외면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몹시 아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출 수 없다.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한다.

전도역할극을 준비하면서 조원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그 누구도 짜증 한 번 내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임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늘 넉넉하고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조장님과 사랑스런 눈빛으로 바라봐주시는 부조장님, 그리고 모든 조원님들께 감사하다.

## ■ 강동 젊은부부학교 3기 수료 간증



/ 오지훈 성도(강동 온누리교회)

2012년 결혼했다. 결혼한 지 약 4년이 지나서 젊은부부학교에 참석했다. 신혼초기 우리 부부는 서로의 다름과 불완전함으로 다툼이 잦았다. 당시에는 그 원인을 찾지 못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다툼이 줄었지만 결혼 전 소망하던 행복한 가정과는 달랐다. 둘째아이를 임신하고 “젊은 부부학교에 꼭 가고 싶다”는 아내의 요청이 있었다. 못 이기는 척 강동 3기 젊은부부학교에 참석했다. 큰 기대는 없었다.

3주 동안의 프로그램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 소망하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여러 강의와 적용실습을 통해 우리 부부가 서로 얼마나 다른 언어와 성향을 가지고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서로 이해하고 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갈등했던 일들이 생각났다. 그 과정에서 자존심을 내세우며 아내에게 상처를 줬던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너무나 다른 성향을 가진 부부가 한 가정을 이루었기에 자연스레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알지 못했다.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채워주는 작은 행동들이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 그때 그 마음으로

자연스레 아내와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서로의 상처와 그로 인한 불완전함도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다. 결혼 전에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과거의 다툼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참 유익하고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낀 것을 우리 부부의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었다.

광림수도원의 1박2일 합숙기간 동안에는 쾌적한 자연 속에서 다시 신혼여행을 온 것 같았다. 일상을 벗어나 온전히 부부만의 내적 치유, 부부이해, 세족식 등의 프로그램 등을 통해 가정과 배우자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느꼈다. 결혼 전 서로를 아껴주고 섬겨주기로 맹세했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이번 젊은부부학교를 통해 갑작스런 큰 변화를 기대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우리 부부가 일상에서 잊고 지내던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의 의미를 깨달은 귀중한 시간이었다. 이 깨달음과 지속적인 변화가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다른 가정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젊은부부학교 사역에 동참하고자 한다. 아내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 ■ 부모교육 전문가 기고



/ 유하워드 성도(도곡 영아부교사, &lt;잘 풀리는 자녀의 비밀&gt; 저자)

## 순리와 이치 그리고 비상

너무도 막강했던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선 사람이 있었다. 바로 다윗이다. 당시 최고의 전투 장비인 놋 투구와 갑옷을 왕으로부터 직접 제공 받았다(삼상 17:38). 그러나 다윗은 외부에서 오는 도움을 포기했다. 대신 자신 안에 있던 쟁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 장면은 실력 있는 아이가 만들어지는 영적 원리를 드러낸다. 실력 있는 아이는 사교육과 같은 외부의 도움에 전적으로 의존한다고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미 아이 안에 있는 그 무엇이 하나님과 만날 때 만들어진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갈 6:4-5).

내 자녀에게는 이미 특별한 무엇이 있다. 바로 그것이 아이를 성공으로 이끌게 된다. 자꾸 외부에서 특별한 것을 몰아다 주려고 해서 안 된다. 자녀가 고등학생이라면 더 늦기 전에 부모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조용히 아이 안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출생부터 지금까지

의 과정을 회상해 보면 알 수 있다. 부모님이 목격했던 아이가 누구인지 자녀에게 이야기해 주길 바란다.

많은 고등학생들이 자신의 이야기에 굶주려 있다.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을 전공해야 하는지 갈급해 한다. 아쉽게도 그들이 처한 현재 교육환경에서는 그런 궁금함을 해결하기 어렵다. 그런 그들에게 말보다는 글이 도움이 된다. 생각은 회상할 때 넓어지고, 글로 쓸 때 날카로워지기 때문이다. 부모는 아이를, 아이는 자신을 보다 정확하게 알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이 스스로 진로를 생각해볼 수 있는 불을 밝힐 것이다. 고등학생들은 자신이 보일 때 움직인다. 자신이 더 잘 보일수록 더 빠르게 변화한다.

자신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었던 다윗의 승리는 기적이 아니다. 순리다. 자신에게 무엇이 없는지 몰랐던 골리앗의 몰락은 실수가 아니다. 이치(理致)다. 그래서 모든 다윗은 이기게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내 아이에게 이미 주신 그것을 꼭 찾길 바란다. 하나님께 내어 드릴 때 아이는 비상(飛翔)할 것이다.

## 장로칼럼

## 온누리교회와 산마루교회

이태열 장로  
(마포공동체)

나는 산마루교회 이주연 목사님을 올해 1월 새벽 기도회에서 처음 알게 되었다. 그때 전하셨던 말씀이 기억에 남는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산마루교회 목욕탕 마련을 위해 비전헌금을 한 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빛진 마음으로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온누리교회의 도움을 지금까지 겪은 제 자신의 고난에 대한 당연한 대가로 생각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성도들 앞에서 회개하는 이주연 목사님의 모습이 나에게 큰 울림이 되었다. 또한 “십자가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노숙인을 끌어안게 되고 원수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라는 말씀이 내 안에 깊이 각인 되었다. 그날 이후 이주연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산마루교회에 대해 더 알고 싶어 검색해봤더니 내가 살고 있는 마포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알고 너무 반가웠다. 때마침 ‘1다락방 1사역’이 선포됐다. 사역지를 찾고자 기대감을 가지고 이주연 목사님과 산마루교회를 찾아갔다.

산마루교회는 서울역 노숙인들을 열심히 돌보고 섬기고 있었다. 생활현장에서 예수님을 바로보여 주고 있는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구원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직접 보여주고 있는 이주연 목사님께 큰 감동을 받았다. 동시에 이 작은 교회가 많은 노숙자사역들을 과연 감당해 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되었다. 이 사역을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 돌아와 즉시 공동체와 상의했다. 그렇게 산마루교회의 노숙인 사역을

하게 되었다.

사실 나는 산마루교회와 함께 노숙인 사역을 하기 전까지 노숙자들을 가까이서 만날 기회가 없었다. 기껏해야 서울역 앞을 지나칠 때 잠시 보는 정도였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을 자주 만나며 아주 친근한 사이가 되었다. 노숙인분들의 ‘해맞이대학’ 저녁식사 섬김, ‘사랑의 농장’ 봉사, 서울역전 새벽침소 등을 통해 그분들과 더욱 가까워졌다. ‘해맞이대학’ 저녁식사를 섬기러 간 첫날을 지금도 기억한다. 가까이서 노숙인들을 대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뭔가 어색한 기분이 들었지만 최선을 다했다. 문제는 냄새였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아주 특유한 냄새였다. 나와 달리 산마루교회 성도들은 아무렇지 않은 듯 했다. 옆에 계신 이주연 목사님도 마찬가지였다. 즐겁게 그분들과 식사하고 계셨다. 그분들 안에 흐르고 있는 십자가의 사랑이 느껴졌다. 그 사랑이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서는 냄새는 안 나지만 내 안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더러운 찌꺼기들이 더 큰 장애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

이재훈 목사님은 “저를 산마루교회 부목사로 생각하시고 필요한 일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시키십시오!”라고 하셨다. 나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그리고 종종 노숙자들과 함께 청소하시는 목사님의 모습을 볼 때 참 기분이 좋아진다. 요즘같이 한국 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을 때 이웃에게 하나님 사랑을 나누기 위해 리더들이 낮은 자리로 향하고, 교회간의 연합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이 아닐까? 무엇보다 산마루교회와 온누리교회가 낮은 곳에서 어려운 이웃을 섬기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산마루교회 목욕탕 건립이 하루빨리 이루어져 그분들의 영육이 정결해지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한다.

## 권사칼럼

## 전도, 같이 밥 먹는 것부터

박인숙 권사  
(온누리전도학교)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전도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있다. 모처럼 직장 동료에게 전도를 하려고 입을 떼는데 “됐고”라는 차가운 말 한 마디로 일축해 버린다. 매일 마주치고 함께 일하는 일터에서 복음을 말로 전하는 방법은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보이는 말씀 선포를 통해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전2:21).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는가? 전하는 사람 없이 어떻게 듣겠는가?(롬 10:14). 우리는 이 딜레마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을 식구(食口)라고 한다. 가족보다 친근감이 있다. 음식은 친밀감, 사랑, 관심과 연결되어 있다. 동료라는 ‘companion’의 어원은 라틴어로 함께 빵을 먹는 사람이란 뜻이다. 人和(인화)라는 한자를 봐도 밥을 같이 먹을 때 화합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요즘 혼밥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또한 TV프로그램을 보면 먹는 방송(먹방)이 대세인 것 같다. 내가 먹지도 않는데 왜 남이 먹는 것을 보고 그토록 열광할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인기인들도 특별하지 않고 나와 똑같기 때문이다. 즉, TV 속 인물과 친하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먹방 유행은 혼자 먹는 밥상에 질려버린 외톨이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는 현상이다

인간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교제하며 친밀함을 나누도록 창조하셨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친해져야 마음이 열린다. 친해지려면 같이 밥부

터 먹어야 한다. 그것이 전도의 출발점이다. “내가 밥 살게”라고 먼저 말하라. 그리고 밥 먹으면서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면서 진심으로 다가가라. 많은 사람들 중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유일한 한 사람인 것처럼 대하라. 예수님께서도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셨다. 오죽하면 바리새인들이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했을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식사를 함께 하셨다

큰 회사를 경영한 회장님의 아내가 내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 가뭄에 콩 나듯 교회에 출석하는 남편이 암으로 투병을 할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고 싶어 ‘천국 가시면 예수님께 무슨 말부터 하고 싶으세요?’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 식사 한 번 같이 하시지요?’ 라고 했다. 세상의 습관대로 비즈니스 하는 것 같아 속상했다. 남편이 돌아가신 며칠 후 남편이 예수님과 식사하는 꿈을 꾸었다. 남편이 진심을 표현하는 방법이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었음을 그제야 깨닫고 그녀는 사람들에게 밥을 사주면서 전도를 한다고 간증했다.

전도훈련은 관계훈련이다. 관계의 핵심은 소통이다. 소통은 밥통이다. 밥을 나누면서 통한다. ‘밥 같이 먹자, 밥 살게’라고 하면서 친해져라. 나와 전도 동역자인 권사 한 분은 전도를 나갈 때 손수 음식을 만들어서 간다. 어느 날 아버지께서 두문불출 식사를 거부하셔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믿게 도와달라는 요청이 왔다. 그 어르신께 소화가 잘 되고, 입맛도 돋는 음식을 만들어 갔더니 좋아하시면서 ‘나는 혼자인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하시면서 마음을 여셨다. 함께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다. 이처럼 음식은 단순히 먹는 것만이 아니다. 교제이고 소통이고 사랑의 표현이다. 전도, 밥 함께 먹는 것으로 출발하자.

## 신앙에세이

## 사기 치는 신들 vs 공감하시는 참 하나님

손정훈 목사  
(한마음정신회복사역)

도덕성에 흠집이 많던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세계적인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사이버 무속인에 빠져 나라의 중요한 결정들을 그르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초현실적인 일들이 우리 곁에서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집단적인 트라우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존 맥아더牧사는 정치적인 현상에 지나치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 것을 권면한다. 우리 모두 어차피 침몰해 가는 타이타닉호를 타고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이다. 우리는 선지자적

인, 초월적인 관점을 가지고 시대의 흐름을 읽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된 회개를 통해 신뢰를 되찾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때다.

이사야 선지자는 부름을 받기도 전에 북이스라엘이 앗시리아에 멸망당하는 것을 봤다. 이어서 산헤립이 남 유다까지 쳐들어와 성읍 46개를 파괴하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다. 그러나 유다의 운명이 백적간두에 놓여 있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셨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사 4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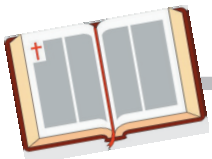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우

리에게 “절대로 홍수가 나지 않게 하겠다”거나 “절대로 불길 가운데 들어갈 일”도 없는 고통 없고 평탄한 길을 약속하지 않으셨음을 알게 된다. 대신 큰물이 덮쳐 와도 너와 함께 있겠다. 큰 불길 가운데 휩싸여도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다.

이번에 네팔의 선교지를 돌아보다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 2015년 4월, 네팔에 진도 7.8의 강진이 발생했다. 8,400여명이 생명을 잃었다. 그런데도 그곳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가 여전히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 기이한 현상을 발견했다. 그 모든 현상의 배후에 힌두교의 윤회사상이 자리하고 있다고 한다. 3억 3천개나 되는 신들에 대한 이 허황된 믿음은 이방의 지배자들이 피지배민족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만들었다. 거대한 사기극과 같음에도 사람들은 이 위약처방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다. 많은 상담학자들이 우리가 겪는 아픔을 가장 효과적으로 치유 받는 방법은 ‘진정하고 진심 어

린 공감의 힘’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그들의 위상은 실재하는 그들의 고통을 외면해 버린다. 이에 비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해 주시고 우리의 뜨거운 눈물을 닦아 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우신 분인가.

또한 하나님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겠다”(사 43:18-19)고 하셨다. 과거와 현재를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도전의 말씀이다. 과연 우리 삶에도 새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사막과 같은 땅을 살아가는 청년과 다음 세대들도 기회와 강물에서 뛰노는 날이 올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약속하셨다. 40년 전 복음화율이 0.1%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세계 최고의 성도 증가율을 보이는 네팔의 기적을 바라보며 다시 한 번 그 말씀을 확신하게 되었다.



## 주일강단

〈3면에 이어〉

#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인간의 본성으로는 희망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본성으로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교육, 문화, 문명 등 그 어떤 것으로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밖으로부터 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으로 표적을 주신 것입니다.

둘째,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죄가 없는 완전한 인성을 가능하게 하신 것입니다. 청교도 아이작 암브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잉태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 친히 잉태되신 것이다.”

모든 인류는 첫 번째 아담으로부터 타락과 죄를 물려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아담으로부터 잉태될 때부터 죄인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원죄를 갖고 태어난 인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원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본성의 타락으로부터 구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뿌리가 되시기 위하여 잉태 때부터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을 한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의 타락 직후에 뱀에게 형벌을 주시면서 주신 말씀이 구원의 첫 번째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네 자손과 여자의 자손 사이에 증오심을 두리니 여자의 자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창 3:15).

‘너’는 뱀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한 뱀, 혹은 사탄입니다. ‘네 자손과 여자의 자손에게 증오심을 두고 여자의 자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씀에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사람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을까요? 성령에 의해 동정녀에게서 태어나는

메시아를 인간이 타락한 직후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뤄진다는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무너뜨리고 뱀의 후손, 사탄은 그분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밧을 못 박히시지 않았습니까? 사탄은 예수님을 완전히 죽인 것 같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발뒤꿈치만 상한 것입니다. 도마에게 그 흔적을 보이셨습니다. 상처만 남아있었을 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여자의 자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예언을 따라 예수님이 여자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신성과 인성이 완벽하게 연합되었습니다. 이 이상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가장 좋은 지혜요, 최고의 지혜로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회개조차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회개를 원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거부하는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회개마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회개할 능력이 없습니다. 만일 스스로 각성해서 회개한다면 그것은 우리 힘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도와주셔야 합니까? 회개란 자기 자신에 대한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일부를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넣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넣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죽음을

우리에게 넣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본성상 하나님이 죽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사람이 되신다면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죽으실 수가 없으므로 사람이 되셔야 하고, 사람은 죽을 수 있음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기에 그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을 도와주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죽으면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을 의지하며 회개하는 순간 우리는 회개할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의 죽음을 의지하여 살아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신비한 역사를 위해서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탄생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신비의 시작이 동정녀 탄생입니다.

여러분, 동정녀 탄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장차 5천 명을 먹이시고,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고,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자신을 환영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구원을 기대하지도 않은 이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함께하시는 분입니다. 그분께서 찾아오신 사건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오심을 환영하지 않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도 오셨나 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완악함을 뛰어넘어 찾아오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본성상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스스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셔서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죽을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건을 환영하는 성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내 안에 온전히 임재하시는 복되고 깊은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 차세대 친구들에게 들려주는 성경 인물 이야기 8

## 솔로몬, 과연 지혜의 왕인가? ②

솔로몬 왕의 치명적인 과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자녀교육을 망쳐버렸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불행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 발생한 남북왕조의 분열인데 이는 철저히 솔로몬이 자녀교육에 실패한데 그 원인이 있었어요. 언뜻 보면 솔로몬은 자기 자식에게 그럴싸한 가르침을 많이 남긴 아버지였어요. 잠언 1장 8절을 보면 “내 아들이여, 네 아버지의 교훈을 잘 듣고 네 어머니의 가르침을 버리지 마라”면서 자식에게 지혜의 가르침을 전해주고 싶어 했어요. 재물을 멀리하며 안빈낙도(安貧樂道)하는 살림의 인생을 가르쳤어요.

“마른 빵을 먹더라도 평안하고 조용한 것이 온갖 맛있는 음식이 가득하고도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잠 17:1).

육신의 욕망을 멀리해야 한다는 가르침도 강력하게 설교했어요.

“네 마음에서 그 여자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고 그 여자가 눈짓으로 너를 흘리지 못하게 하여라”(잠 6:25).

이 지혜의 말씀들이 르호보암에게는 전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조금 회개했지만 성경이 끝내 르호보암을 악한 왕의 대명사로 기록하고 있는걸 보면 그의 인생이 불쌍하기까지 해요. 르호보암은 어떻게 탁월한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어리석고 난폭한 왕이 되어 나라를 반 토막으로 만드는 치명적 실수를 저질렀을까요? 그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솔로몬이 아버지로서 제대로 된 자녀교육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은 입으로만 지혜를 가르쳤지 삶으로는 보여주지 못했어요. 자녀교육이 ‘telling’이 아니라 ‘showing’임을 명심하지 못했던 거예요.

아들에게 끝없이 이방 여인과의 음란을 경고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이미 천 명이나 되는 여인을 부인과 첩으로 두고 있었고, 입으로는 검소하게 사는 것이 아름답다고 가르쳤지만 정작 자신이 걸친 옷과 손에 든 황금 잔은 너무 화려했어요. 황금 침대에서 황금 잔을 들고

이방 여인을 곁에 두고 있는 아버지가 하는 말들이 아들 르호보암에게는 공허한 메아리이자 잔소리였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어요. 그렇게 언행이 일치되지 않는 이중적 삶을 사는 사람은 제 아무리 달변으로 가르친다 할지라도 가르침을 받는 자에게는 자기기만이자 가증함을 느끼게 해요. 결국 반발심으로 이어져 벗어나는 결과를 낳게 되고요. 오늘날에도 부모의 권위(authority)를 인정받지 못하고 자녀들과의 극심한 갈등을 겪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비슷한 맥락이에요.

솔로몬이 죽고 난 후 왕이 된 르호보암이 원로신하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젊은 친구들과 더불어 내뱉는 교만한 언사를 보면 그의 심사가 얼마나 뒤틀렸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어요. 그의 사생활 또한 아버지를 닮아서 부인이 18명, 첩이 60명이나 되었다고 하니 미워하면서도 닮아버린 애증의 부자관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지요?

성경은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는 화

려한 문제와 언변이 아니라 진리대로 사는 삶이 중요하다고 웅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누구든지 이 계명을 지키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마 5:19). 예수님은 가르침대로 골고다의 십자가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어요. 나와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바로 보여주는 삶은 너무도 중요하고도 어려운 거예요. 남에게 함부로 가르치며 살기는 쉬워요. 그러나 내가 입을 열 때마다 내 친구가, 내 부모님이 내가 섬기는 예수님을 비웃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할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만 큼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간절하게 구했다면 이 세상이 훨씬 좋아지지 않았을까요?



곽상학 목사  
(강동 온누리교회)

서빙고

02.793.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3부 오전 11:30 본당  
4부 오후 1:50 본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경찬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일본어통역 지원)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본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시 본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20 본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본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 손정훈 목사  
시간:매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 김국중 팀장(010-8885-6757)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매주 1:30 두란노홀  
문의: 하태일 팀장(010-3798-3148)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홀  
문의: 박범식 팀장 (010-5225-1519)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7: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윤명자 팀장 (010-3217-9593)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홀  
문의 : 전도본부 (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홀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영선 팀장(010-3474-7635)

**일본어예배**  
매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 팀장(010-9349-5631)

영어예배

매주일 오후 4:00 본당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창무 집사(010-7917-8008)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안산 - 주일예배**  
러시아 예배 10:00 안산M센터 Onnuri hall  
캄보디아 예배 10:00 안산M센터 Peace 302  
미얀마 예배 10:30 안산M센터 Joy 202  
몽골어 예배 10:30 안산M센터 Joy 201  
네팔 예배 10:30 안산M센터 Peace 303  
열방 예배 09:00/11:00 안산M센터 Manna hall  
태국 예배 14:00 안산M센터 Peace 303  
스리랑카 예배 11:30 안산M센터 Peace 304  
베트남 예배 11:00 안산M센터 Peace 305  
필리핀 예배 10:30 안산M센터 Peace 301  
다문화 예뎸 10:30 안산M센터 Dream Kids Room  
다문화 꿈땅 11:00 안산M센터 StarTree  
다문화과워웨이브 14:00 안산M센터 StarTree

**서빙고**  
몽골어예배 14:00 선교관 401호  
러시아어예배 14:00 선교관 301호  
네팔어예배 14:30 선교관 402호  
아랍어예배 14:00 본관 B102호  
매월 첫째주 선교관 402호  
다문화꿈땅예배 15:00 선교관 403호

**인천 몽골어 예배** 13:00 프리스페이스3층  
**평택 몽골어 예배** 11:30 평택 온누리교회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주 토 오전8:00 시온홀  
양재: 매주 토 오전8:00 JDS홀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본관 B102호  
문의: 공자정 집사(010-5101-4613)

**군 선교와 군입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 (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웅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12:15~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오전 10시30분-12시30분

-서틀운행(010-9117-9325)  
-서빙고출발 09:00, 양재출발 09:30  
-Acts29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서빙고 목요어머니 기도회**  
시간: 목요일 10시 30분 / 누리홀  
문의: 안민경 간사(02-3215-3523)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월 셋째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김세라 선교사(010-4029-7601)

**목요선교집회 싱어 모임**  
연습 및 예배: 목요일 오후 5:30-9:30 (저녁식사시간 포함)  
문의: 010-2701-5309

**금요회복예배 싱어 모임**  
자격: 온누리교인  
연습 및 예배: 금요일 오후 6:00-8:45 (저녁식사 포함)  
문의: 이문정 총무(010-9767-3319)

**국악찬양팀 팀원 모집**  
분야: 사물놀이 등 타악으로 주님을 찬양 하기원하시는 분  
모임: 매주 목 오후 7시~9시 (반서빙고)  
문의: 010-6281-9121

**경배와찬양 성탄절 큰잔치**  
일시: 12월 25일 오후 4시  
장소: 서울 시청 앞 광장 및 대학교  
문의: 02-796-9700

**두란노서원 잡지본부 목회와신학팀 채용 공고**  
모집: 목회와신학 편집 기자 1명  
자격: 경력 3년 미만, 신학 관련 전공자(학사 이상), 목회 경력자(파스트아프 경력 포함)  
마감: 12월 14일까지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신앙고백서,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지원: 채용사이트 (<http://www.duranno.com/recruit/>)

**CMN 마노아팀 국내 아웃리치 봉사자 모집**  
장소: 평택 온누리 인도네시아 교회  
일시: 12월 18일(일) 9:00 서빙고 출발  
대상: 간호사, 의사, 이마용  
문의: 송영주 팀장(010-3005-4787)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양재

02.570.7430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0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2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월요QT예배**  
매주 월요일 오후 7:30 화평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목요찬양예배**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7:50 기쁨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이수준 팀장(010-6398-6022)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2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Rock 5세 ~ 초등1(충성홀 11:30)  
Jesus Crew 초등2 ~ 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중등 ~ 고등 (충성홀 9:00)

**도곡교육관 주일 9:00 예배**  
성인예배: 사랑홀 (숙명여고 대강당)

**차세대예배(한국어)**  
영아부: 도곡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치부: 도곡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유년부: 도곡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교육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11: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차세대예배(영어)**  
Hope Zone(Newborn~Age4)  
: 도곡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교육관 꿈터(B동 1층)  
Joy Zone(Grades3~6)  
: 도곡교육관 온유홀(A동 2층)

Middle School Group(Grades7~8)  
: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  
High School Group(Grades9~12)  
: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오후1:30)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청년부)**  
갈렙청년부예배: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최재호 전도사(010-4336-3528)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제라르 티네베)  
일시: 주일 오후 2:00  
장소: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3912-9393, \*통역 지원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목상의집(WIN) 주일예배**  
일시: 매 주일 10시 남한산성 목상의집 \*서틀운행(010-8870-9313)  
-양재역10번출구 9:00 출발(던킨도너츠)  
-북정역 2번출구 9:20 출발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배수연 간사(02-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환우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시간: 매주 수요일 10:30-14:00  
문의: 김정숙 팀장(010-4946-3832)  
환우중보 및 심방요청을 받음

**양재 목요어머니기도회**  
목요일 10시 30분 / JDS홀  
문의: 이현주 간사(02-570-7553)

**도곡 어머니기도회**  
목요일 10시 30분 / 충성홀  
문의: 이현주 간사(02-570-7553)

**나라와 통일과 평화를 위한 기도 모임 살롱기도회**  
일시: 매주 월 19:30 양재 비전홀A  
문의: 김두진 총무(010-6298-6318)

**공사랑 축구선교팀 회원모집**  
비전: 축구를 통한 선교  
문의: 오명석 총무 010-6470-7131

**온누리선교재단 직원 채용공고**  
모집: 양재 커피숍 직원, 양지 영선 직원, 양지 전기 직원, 서빙고 온누리플라워 플로리스트(1년 기간제 계약직)  
자격: 세례교인, 신입 또는 경력 (동종업계 경력자 우대), 인근거주자 우대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간증문  
접수: bible81@onnuri.org  
문의: 총무팀 (02-3215-3102)

부천

032.322.9686

**주일예배**  
1부 오전7:00/2부 오전9:00/3부 오전11:30/4부 오후 2:00/5부 오후4:00(대청예배)/6부 오후7:00(부흥예배)

**새벽기도** 월~토 오전5:20 본당

**차세대 예배**  
영아부-오전9:00, 11:30 / 유치부-오전9:00, 11:30  
유년부-오전9:00, 11:30 / 초등1부-오전9:00  
초등2부-오전11:30 / 유초등부-오후2:00  
중등부-오전11:30 / 고등부-오전9:0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심야예배** 매주 수 오후 9:00

**한사랑예배(탈북민)** 매주 오후 2:00 3층 꿈아이홀

**사랑부예배(장애우)** 매주 오전 11:30 3층 꿈아이홀

**어린이영어예배(JEM)** 오전 9:00 비전홀

수원

031.895.6500

**주일예배**  
1부 오전 7:00 /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30 / 4부 오후 2:00 / 5부 오후 7:00

**대학청년 주일예배**  
대학부 14:00 경찬홀, 청년부 15:00 사랑홀

**새벽예배** 월~토 오전 5:2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온누리워십** 매주 수 오후 7:40

**차세대 주일예배**  
영아부 오전 9:00, 11:30 드림홀 / 유아부 오전 9:00, 11:30 조이홀 / 유치부 9:00, 11:30 소망홀 / 유년부 9:00(초1~3학년), 11:30(초1~2학년) 사랑홀 / 초등부 9:00(초4~6학년), 11:30(초3~4학년) 경찬홀 / 소년부 11:30(초5~6학년) 믿음홀 / 중등부 9:00 비전홀 / 고등부 9:00 믿음홀

**영어예배** (어린이&중고등영어) 11:30 비전홀

대전

042.825.3642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본당 / 2부 오전 11:30 본당  
3부 오후 2시 본당 / 4부 오후 4시 본당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5 본당  
토요새벽기도회▶ 매주 토 오전 6:0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본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오후 7:30 본당

**차세대주일예배**  
예뎸(36개월~7세) 오전 09:00  
꿈땅(초1~초6) 오전 09:00  
영아부 오전 11:30 유치부 오전 11:30  
유년부 오전 11:30 소년부 오전 11:30  
초등부 오전 11:30 중등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9:00

남양주

031.565.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09:00 본당 / 2부 오전 11:30 본당  
3부 오후 2:00 본당

**주중예배**  
온누리미션예배(인도,네팔) 매주 토 오후 7:00  
사이닝글로리  
새벽예배(월~토) 오전 5:20 3층 본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3층 본당  
수요목양예배 오후 7:30 3층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오전 11:30 2층 예뎸홀  
유치부 오전 9:00 2층 예뎸홀  
유년부 오전 9:00 2층 꿈땅홀  
소년부 오전 11:30 2층 꿈땅홀  
중등부 주일 오전 11시30분 기쁨홀  
고등부 주일 오전 09시00분 기쁨홀

평택

031.651.9680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30 본당  
3부 오후 2:00 본당(대학청년)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온누리워십 수 오후 7:30 본당  
How Mission 목 오후 7:30 비전홀

**차세대예배**  
예수님의꿈아이 오전 11:30 본관2층  
꿈이지라는땅 오전 9:00 본관2층  
파워웨이브 오전 9:00 파워웨이브교육관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20 본당

**주일국제예배**  
몽골어 예배 11:30 드림홀  
인도네시아어예배 11:00 인도네시아 웰터

인천

032.437.9686

**주일예배**  
인천 글로벌캠퍼스(IGC) 운영재단 B1층  
성인 1부 오전 9시 / 성인 2부 오전 11시 30분 / 성인 3부 오후 2시

차세대 (영아부/유치부/유년부/초등부)오전 11시 30분  
어린이영어예배 오후 2시

**프리스페이스 6층**  
중등부 오전 11시/고등부 오전 9시/대학청년 오후 2시

프리스페이스 3층  
사랑부 오전 11시 / 몽골어예배 오후 1시

**주중예배 - 프리스페이스 6층**  
새벽기도회(월~토) 5:2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부흥예배 매주 수 오후 7:40

강동

02.475.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30 본당  
3부 (프라미스청년) 오후 2:00 본당  
프라미스U대학부 오후 2:00 사랑홀

**차세대예배(주일)**  
예수님의꿈아이(영아부) 오전 11:30 기쁨홀  
예수님의꿈아이(유치부) 오전 11:30 두란노홀  
꿈이지라는땅(유년부) 오전 11:30 드림홀  
꿈이지라는땅(초등부) 오전 11:30 사랑홀  
파워웨이브 오전 9:00 두란노홀  
사랑부 오전 9:00 사랑홀

**주중 예배**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20 본당  
수요오전예배 오전 10:30 본당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본당

양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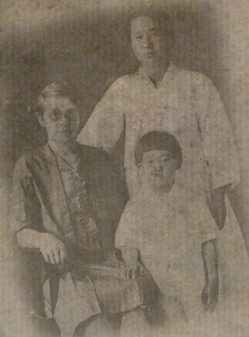
031.331.8171

**주일 성인예배**  
1부 예배 / 9:00 / 2층 김사무엘홀  
2부 예배 / 11:00 / 2층 김사무엘홀  
3부 두드림예배 / 14:00 / 지하1층 박모세홀(대청)

**주일 차세대예배**  
예수님의 꿈아이(영아/ 11:00 / 3층 주선애홀 (영성중계)  
예수님의 꿈아이(유아,유치)/ 11:00/지하1층 무어홀  
꿈이지라는 땅(유년)/ 11:00/ 지하1층 위더슨홀  
꿈이지라는 땅(초등)/ 11:00/ 지하1층 길보른홀  
파워웨이브 / 11:00 / 지하1층 박모세홀

**주중예배**  
새벽예배(월~토) / 5:20 / 1층 시안홀  
수요선교예배 / 19:20 / 1층 시안홀





고아였던 그녀가 낯선 땅을 품기까지  
조선의 작은 밀알이 되어 상한 영혼들을 치유하기까지  
서서평 선교사의 삶을 이끈 하나님의 사랑

조선의 가장 소외된 이웃인 고아와 과부들을 섬기면서  
과로와 영양실조에 걸려 죽기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바로 보여주었던  
서서평 선교사의 삶이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 서서평

徐舒平

천천히 평온하게

내레이션 : 배우 하정우

12월 24일 다큐 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상영 시간 : 오전 10시, 오후 2시, 오후 5시

장소 : 서빙고 본당

